

대한상공인당(가칭)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하며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상공인당 창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총사업자 수의 99%를 차지하는 상공인들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인, 스타트업 등 1,800만 사업자와 종사자가 있지만,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국내 소비 급감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방침의 일방적 발표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여야 거대 양당은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제때 보호하거나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간호인력 및 문화예술종사자 등 소외된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을 추진할 정당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인당(가칭)은 이들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빈틈없이 들겠습니다.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상공인당은 첫째, 누구나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세대별로 맞춤형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런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상공인당(가칭)은 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4. 2. 3

대한상공인당(가칭)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일동